

# “배우로 활짝 피었어요”

## 황정음·오연서·서현진... 걸그룹 출신서 연기자로 완벽 변신

“저희 걸그룹 출신이에요.”  
소위 아이돌 출신인데 아이돌 때는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배우로 전향한 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배우로서 인기를 얻으면서 걸그룹 출신이라는 경력이 새삼 화제가 된

다. 서현진(31), 황정음(31), 오연서(29)가 가수로서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연기자로서 활짝 꽃을 피운 대표적인 사례로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처음에는 황정음이, 그다음에는 오연서가 뜨고 이번에는 서현진이 흥련을 치면서 다시 이들의 ‘출신 성분’이 나란히 화제로 떠올랐다.



◇황정음 ‘그녀는 예뻐다’ 짝고 ‘운빨 로맨스’=2002년 슈가로 데뷔한 황정음은 타고난 미모로 눈길을 끌긴 했지만, 가수로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10대 특유의 통통 튀는 철부지 캐릭터로 2년간 활동하며 화제는 모았으나 거기까지. 그렇게 쌓은 인지도를 발판으로 슈가를 탈퇴하고 2005년 연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2009년 ‘지붕 뚫고 하이킥’을 만나기 전까지는 형편없는 연기력으로 비난의 못대를 맞았다. 돌아보면 견도 없이 연기에 도전한 셈이다.

하지만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눈에 띄는 변화와 성장을 보여준 것을 시작으로 ‘자이언트’(2010), ‘내 마음이 들리니’(2011), ‘골든타임’(2012), ‘돈의 화신’(2013)까지 쭉쭉 뻗어 나간 황정음은 2013년 ‘비밀’에서 보여준 연기로 아낌없는 갈채를 받았다. 연기 시작 8년 만. ‘2013 K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연기상과 네티즌상을 받은 그는 당시 “연기로 칭찬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어 지난해 ‘킬미 힐미’를 거쳐 ‘그녀는 예뻐다’로 황정음은 이제 너도나도 잡으려는 캐스팅 1순위의 여배우가 됐다. ‘2015 MBC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연기상을 비롯해, 방송 3사 드라마PD가 뽑은 올해의 연기자상, 네티즌 인기상, 10대 스타상을 휩쓸었다. ‘그녀는 예뻐다’로 절정의 순간을 맞은 직후 결혼을 해 이제 유부녀로서 첫 번째 작품인 ‘운빨 로맨스’를 오는 25일 선보이게 된다.

◇서현진 ‘식샤를 합시다?’ 찍고 ‘또 오해영’=tvN ‘또 오해영’이 연일 화제를 모으면서 드디어 서현진에게도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다. 17세 때인 2001년 밀크의 보컬로 데뷔한 서현진은 1년 활동 끝에 가수를 관망다. 2005년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에 출연하면서 연기에 데뷔한 이래 드라마 ‘황진이’와 ‘히트’에 얼굴을 내밀었고, ‘창피해’와 ‘요술’ 등의 독립영화에서는 주연도 맡았다.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1년 ‘짝패’ 때부터. 오연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데뷔 10년 만이다. ‘2011 MBC 연기대상’ 신인상을 차지했다. 이후 ‘신들의 만찬’(2012)에서 보여준 악역 연기로 방점을 찍은 그는 ‘2012 MBC 연기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불의 여신 정이’(2013), ‘제왕의 딸 수백향’(2013)을 거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주연

로 발돋움하는 데는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던 서현진은 지난해 ‘식샤를 합시다?’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 기존의 차갑거나 차분한 이미지를 떨쳐내고 발랄한 연기를 생생하게 소화해내면서 서현진이라는 배우의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받은 것. 이를 바탕으로 그는 ‘또 오해영’의 타이틀 롤을 맡게 됐고, 완벽하게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면서 이보다 사랑스러울 수 없는 캐릭터를 능수능란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오연서 ‘닝쿨당’ 짝고 ‘왔다 장보리’=황정음은 그녀가 슈가 출신이었다는 게 알려지기도 했지만, 오연서가 2002년 LUV로 데뷔했다는 사실은 ‘문헌 역사’였다. 오연서는 중학교 3학년 때 분명한 오해영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또 오해영’에 나오는 전혜빈과 댄스그룹 LUV로 데뷔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해체한 LUV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그는 이듬해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에서 주인공인 고아라의 언니 역을 맡아 연기를 시작

했고 동국대 연영과에 진학한 뒤 2009년 영화 ‘여고괴담5’에서는 공동주연으로 발탁되기도 했지만 역시나 이름도, 얼굴도 알리는 데 실패했다. 그러다 데뷔 10년 만에 기회가 왔다. 2012년 ‘닝쿨당’을 맡은 시누이 방말숙으로 그는 오랜 기간 음지 생활을 접고 양지로 나왔다. 여세를 몰아 ‘오자룡이 간다’에는 여주인공으로 발탁됐다. 10년의 절치부심은 배우 오연서를 꽃 피우게 했다. 오래된 중고 신인인 그는 2012년 ‘KBS 연기대상’과 ‘MBC 연기대상’에서 나란히 신인연기상을 차지했다. 그리고 대박을 친 2014년 ‘왔다! 장보리’로 오연서는 하늘을 찌르는 인기를 누리며 남녀노소의 사랑을 받았다. ‘2014 MBC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연기상을 거머쥐었다. 이후 ‘빛나거나 미치거나’(2015)를 거쳐 지난 4월 막을 내린 ‘돌아와요 아저씨’를 통해 오연서는 현대극도, 사극도, 심지어 남자연기도 해낼 수 있는 배우임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 공민지 빠진 2NE1...지아 빠진 미쓰에이

## 흔들리는 2세대 걸그룹

### 이엑스아이디·AOA·트와이스 등으로 세대교체

걸그룹 세대교체가 본격화했다. 트와이스와 여자친구 등 신진 세력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가운데 K팝 붐을 이끈 2세대 걸그룹들이 잇달아 멤버 탈퇴 등으로 파열음을 냈다. 지난달 투에니원 공민지의 이탈 소식에 이어 이달 미쓰에이의 중국인 멤버 지아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만료되며 팀 탈퇴를 발표했다. 앞서 원더걸스는 멤버 교체에 반복하며 긴 공백기를 겪었고, 카라는 소속사 DSP 미디어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며 멤버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실상 해체 상태다. 또 소녀시대에선 제시카가 팀을 탈퇴하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났고, 에프엑스에선 설리가 팀을 탈퇴하고 배우로 전향했다. 에프엑스는 멤버의 탈퇴와 영입이 반복됐고 개별 일정으로 팀 활동은 중단되다시피 했다. 2010년 데뷔한 미쓰에이를 제외하고 이들 모두 2007~2009년 데뷔한 팀들로 1990년대 활약한 대표적인 걸그룹인 S.E.S와 핑클에 이어 2세대 걸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해외에서 큰 활약을 보이며 K팝 붐을 견인한 팀들. 그러나 이젠 모두 원년 멤버의 완전체 활동이 불가능해졌고 앨범을 내는 주기도 길어졌다. 그중 2007년 데뷔 동시기 소녀시대와 원더걸스, 카라는 2세대 걸그룹 시장을 이끈 주축으로 해외에서 큰 활약을 보여준 주역들이다. 소녀시대와 카라는 2010년 일본에 나란히 데뷔해 오리콘차트를 휩쓸며 대표적인 K팝 걸그룹으로 성공적인 활동을 펼쳤다. 원더걸스도 2009년 미국에 진출해 ‘노바디’(Nobody)로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 76위에 올라 첫 기록을 세웠다. 업계에선 팀 활동이 길어지면 완전체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아의 탈퇴를 발표한 미쓰에이 역시 “남은 세 멤버가 당분간 개별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9년 데뷔한 포미닛과 시크릿, 2010년 데뷔한 씨스타가 완전체로 활동 중이다.

2세대 걸그룹 대부분이 주춤한 사이 최근 1~2년 신진 걸그룹들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2012년 데뷔한 이엑스아이디와 AOA가 초반 주목받지 못하다가 2014년부터 각각 ‘위아래’와 ‘짧은치마’를 히트시키며 인기 상승세를 탔다. 뒤이어 지난해 데뷔한 여자친구와 트와이스, 엠넷 ‘프로듀스 101’을 통해 탄생한 아이오아이까지 가세하며 새로운 흐름을 형성했다. 그중 트와이스는 ‘우아하게’와 ‘차어 업’을 잇달아 히트시키며 ‘음원 칸’으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결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자주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이웃집 찰스(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닥터365 05 세상발견 유레카
12	00 KBS 뉴스 12	00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재)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광대	00 SBS 12 뉴스 20 닥터365 55 열린공간 톡 talk(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티워크 특선 (밤상의 전설)(재) 05 별별가족(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TV블로그 꿈지락
2	00 명인 50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00 키즈 사이언스 5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3	40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50 안녕 우리말 55 튼튼생활체조	00 자동차부착상 위키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톡? 톡! 키즈스쿨 5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서어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동네스타 전국방송내보내기(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특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라라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수상한 휴가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00 월화 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대박)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티워크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2016 가정의 달 특집 휴먼다큐 사랑 4부 (시간을 달리는 소년 원기)	10 동상이몽 관작이 관작하
12	20 해외결정드라마 (닥터 후 시즌8)	35 비바 K리그	20 MBC 뉴스24 4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55 스포츠 특선 (7! 센터)	30 나이트 라인

###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내 아이의 중독)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05:30 건강하 아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신앙의 근간을 마련하다 공작기계 제조 양정식)	15:15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대기행
05:40 성공시대 가는 한국인 (신앙의 근간을 마련하다 공작기계 제조 양정식)	11:00 세계대기행(재)	15:30 꼬마사 마미코	<미지의 땅, 내날 동방남기행 1부 낚신 일상으로의 초대>
06:10 EBS 특별기획 통찰	11:40 한국기행(재)	15:40 오락차차 아이쿠	21:30 한국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2:00 EBS 정오 뉴스	16:00 캐니멀(재)	<내 마음의 울동드 1부 울동드의 봄은 꽃보다 아름답다>
07:30 로보카 폴리	12:10 시대공간 (스토리 그곳)	16:30 코코코 다큐	<1부 시민의 권력외지>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16:45 뽀롱뽀롱 유치원 1~3(재)	22:45 달라졌어요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3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23:35 시대공간
08:45 코코코 다큐	13:50 원더볼츠(재)	17:45 로보카 폴리	24:05 지식채널 e
09:00 캐니멀	14:00 미술탐험대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너하니~4	24:10 EBS 특별기획 통찰 <자연과 인간의 통합적 이해>
09:30 원더볼츠	14:30 부릉부릉 부르미즈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재)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교부 열린 스페셜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3일 (음 4월 17일 乙巳)

子	48년생 두서없는 변수로 인해서 감미를 잡을 수 없게 하는 국면이니 진중하라. 60년생 사소함을 차치하고 과단 한다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72년생 실력부터 키우고 볼 일이다. 84년생 집중하다 보면 명예가 성취하게 되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5, 81	午	42년생 소강상태 하에 놓여있는 기존의 국면을 타개할 만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54년생 디딤돌이 될 것이다. 66년생 잘 살펴보라. 78년생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영동한 것만 눈에 띈다. 행운의 숫자 : 80, 71
丑	49년생 새로운 틀이 짜이고 관계가 형성되리라. 61년생 공격적인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73년생 다 함께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85년생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5, 48	未	43년생 향후의 달성보다 현재의 유지에 신경 써라. 55년생 포용력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67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오산이다. 79년생 상태에 존중해 중단된 자연스럽게 무궁한 발전에 이르게 된다. 행운의 숫자 : 73, 97
寅	50년생 새장에 갇힌 새가 구름을 그리워하는 격이다. 62년생 마음만 있을 뿐, 실행하기 힘든 판세이니 침으로 애석하지 그지않았다. 74년생 꼭 만나야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니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보라. 86년생 변수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7, 58	申	44년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장이 많을 수도 있다. 56년생 이는 길도 물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68년생 듣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니라. 80년생 상대가 심정의 변화를 심하게 보일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3, 39
卯	51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나아가자. 63년생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단계에 와있다. 75년생 흑학의 추위에 떨어보았던 이만이 태양 별의 진정한 온기를 만끽할 수 있느니라. 87년생 뒷감당할 일까지 염두에 두고 행하라. 행운의 숫자 : 43, 94	酉	45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시 방심한다면 그 순간에 놓칠 수도 있다. 57년생 미리 준비 해두어야 목전에 당황하지 않으리라. 69년생 기다이 잡히는 시점이다. 81년생 자유로운 상태로 놔두는 것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56, 85
辰	40년생 단순화시켜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52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길사에 이른다. 64년생 계획대로라면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76년생 지각 변동을 재촉하리라. 88년생 소중한 사람이니 정보를 접하게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3, 55	戌	46년생 시기상조이니 마음을 비우고 대세를 관망해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 58년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이 용이하다. 70년생 세밀하게 조절해야 할 상황이니라. 82년생 모여서 논해야 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53
巳	41년생 더불어서 억울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53년생 부작유의 원인이 해소되어야 생산적으로 전환된다. 65년생 규칙적이려면 신뢰감을 준다. 77년생 고르지 않는 성국이다. 89년생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져 보이리라. 행운의 숫자 : 63, 64	亥	47년생 예전과는 달리 흐름이 심상치 않다. 59년생 소신과 주관 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71년생 마무리까지 잘 한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83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형국에 놓여있다. 행운의 숫자 : 36, 4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